

제14회 평의원회 회의록

□ 개 요

- 일시 및 장소 : 2023.04.05.(수), 15:30~17:00, 행정본관(E14) 제1회의실
- 참석자 : 재적 평의원 11인 전원 참석
 - 의장 신하용, 부의장 이창준, Mohammed Haruna Hamza, 고정식, 김소영, 김유승, 김진우, 박성동, 이동민, 이희승, 유승화 평의원
 - ※ 대리인 : 기획처장 김경수
 - ※ 배석자 : 김하일 의과학대학원장, 박성대 KAIST 클리닉운영팀장, 김돌비 예산팀장, 원종대 교학기획팀장, 박연호 학적팀장

□ 주요 논의내용

- (제1호) 학생평의원 보궐선거 결과 보고
 - 신임 학생평의원 2인의 소감 발표가 있었으며, 학생평의원이지만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전체의 발전을 위해 활동해 달라는 의장의 당부말씀이 있었음.
- (제2호) 전기(제13회) 회의록 보고
 - 안전을 원안대로 접수함.
 - Pass / No Record 제도와 관련하여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또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세밀한 추적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제3호) 일반장학생 등록금 인상현황 보고
 - 일반장학생 등록금 인상현황에 대해 김돌비 예산팀장의 설명이 있었음.
 - 등록금 변경사항에 대해 학생들이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모집요강 등에 상세하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 등록금을 결정하는 등록금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입학처장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를 학교 본부에 건의함.

○ (제4호)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계획(안) 보고

-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계획(안)에 대해 김하일 의과학대학원장의 설명이 있었음.
- 동 안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의·답변 등이 있었음.

1. (Q) 현재 운영 중인 의과학대학원이 이미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를 계속 유지하지 않고 과기의전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한 이유는?

(A) 의과학대학원은 현재 연간 약 10명의 MD-Ph.D를 배출함으로써 성공한 제도로 인정받고 있지만, 추가적인 확대는 어려운 상황이며 대부분의 졸업생들이 결국 임상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과기의전원 설립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추진하게 되었음.

2. (Q) 의사와 공학자의 효율적인 공동연구를 위해 연구병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연구병원 설립계획이 있는지?

(A) 연구병원의 수요는 있으나 국내에서는 연구를 할 수 있는 의사가 많지 않고 막대한 운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연구병원 설립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다만, 과기정통부 산하 한국원자력의학원(원자력병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미래의 연구병원과 같은 형태로 발전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3. (Q) 과기의전원의 입학생 자격 기준과 병역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A) 현재 세부적인 기준을 수립하지는 못했지만, 입학 자격은 KAIST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이공계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함. 또한 병역문제는 군의관으로서 현재의 전문연구요원 정원과는 별도로 책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4. (Q) 과기의전원 설립을 위한 기간과 예산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지? 또한 법률 또는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지?

(A) 예산은 향후 약 4~5년간 500억원에서 1,000억원 규모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재정이라고 생각됨. 제도적인 문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정원을 배정받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임.

5. (S) 과기의전원 설립과 관련하여 학내 구성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컨센서스를 모으는 노력이 필요하며, 각 평의원들도 구성 단위별로 의견을 모아 주기를 당부하는 말씀이 있었음.